

2007. 11. 26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07년 11월 2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생산부서: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tel. 02-958-4603

KDI 대외협력팀 tel. 02-958-4030 fax. 02-960-0652

기업부문,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된 부문으로 평가받아
경제전문가(88.1%),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낮다고 인식

-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-

1. 조사 개요

- 조사 대상: 경제전문가 268명
 - 교수 56명, 연구원 47명, 기업인 68명, 금융전문가 49명, 투자분석가 48명
- 조사기간: 2007. 11. 14 ~ 11. 19
- 조사방법: e-mail

2. 조사 결과 요지

- ◇ 경제전문가(81.0%), 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
- ◇ 외환위기 원인들 중 ‘취약한 외채구조’와 ‘방만한 기업경영’이 가장 개선돼
- ◇ 기업부문,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 받아
- ◇ 4대 개혁부문 중 기업금융 부문은 개선되었지만, 노동공공 부문은 외환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
- ◇ 경제전문가(88.1%),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낮다고 인식
- ◇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‘불필요한 규제완화’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나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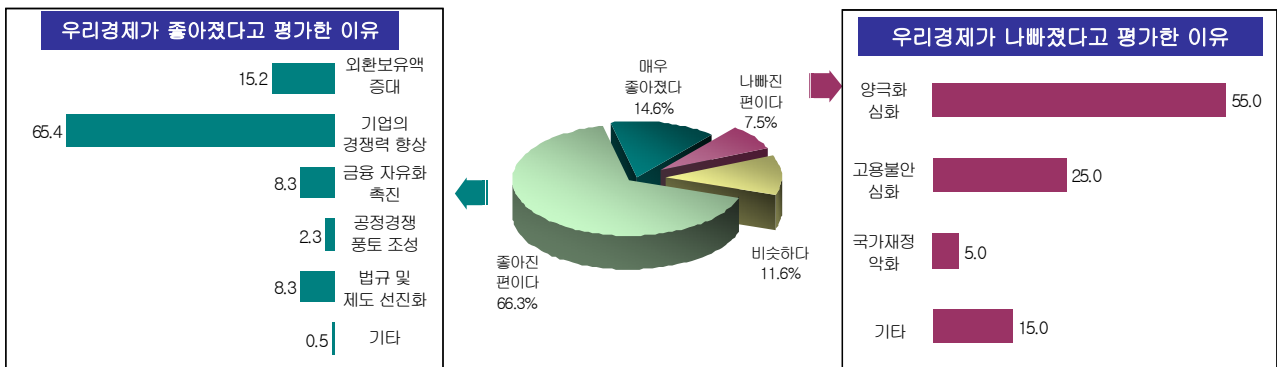
3. 조사 결과 요약

1. 외환위기 10년에 대한 평가

1) 외환위기 이전과의 경제 상황 비교

□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(81.0%)은 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(‘매우 좋아졌다’ 14.6% + ‘좋아진 편이다’ 66.4%). 반면, ‘나빠졌다’는 평가는 7.5%에 불과해

[그림 1] 외환위기 이전과의 경제 상황 비교



-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‘기업의 경쟁력 향상’(65.4%)을 가장 많이 꼽았음. 다음으로 ‘외환보유액 증대’(15.2%)라는 응답이 많았음.
-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들은, ‘계층·부문 간 양극화 심화’(55.0%)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. 다음으로는 ‘고용불안 심화’(25.0%)를 많이 꼽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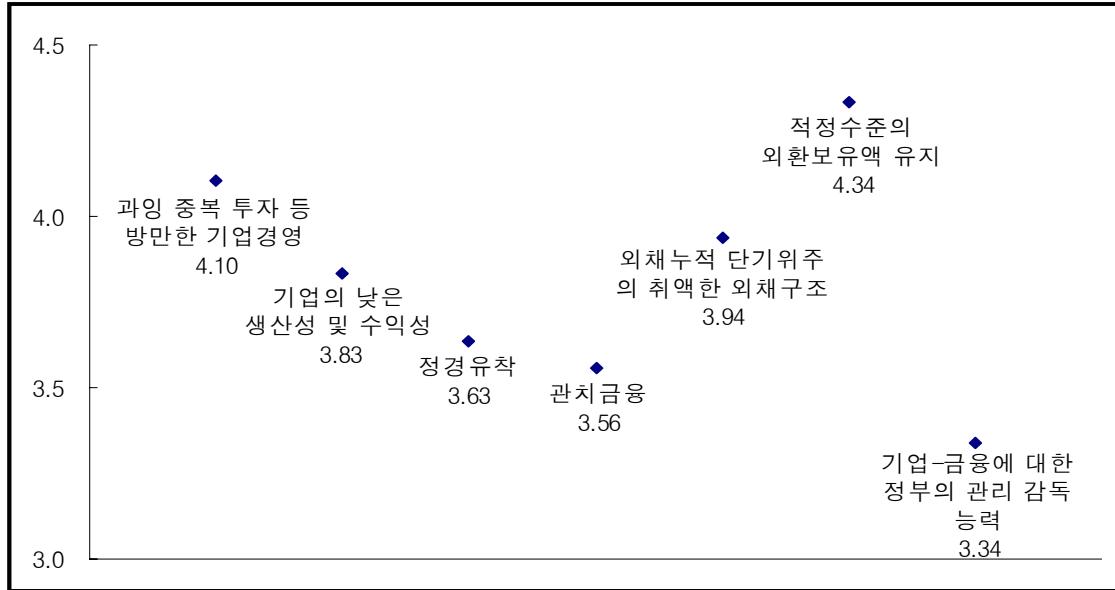
2)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개선 여부

□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‘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’(94.8%, 4.34)*, ‘과잉·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’(92.5%, 4.10)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

- 반면, ‘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’(43.7%, 3.34), ‘관치금융’(53.4%, 3.56), ‘정경유착’(59.0%, 3.63) 등은 개선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함.

* (개선%, [매우악화(1)←보통(3)→매우개선(5)])

[그림 2]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개선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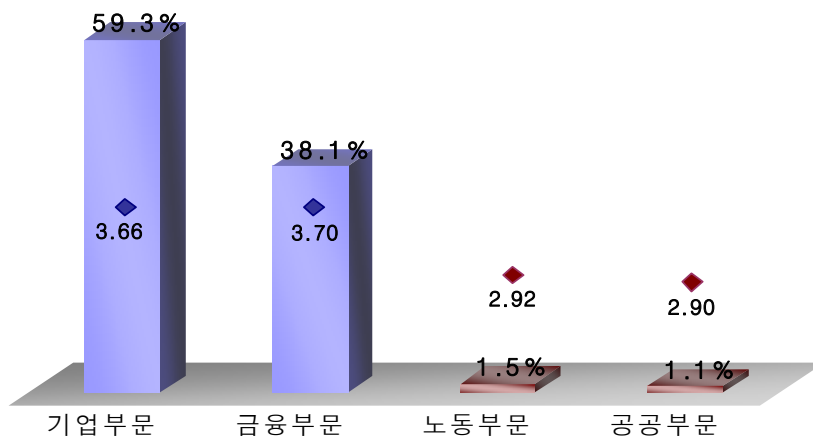


2. 외환위기 10년에 대한 부문별 평가

1) 4대 개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

□ 경제전문가 59.3%가 4대 부문(기업·금융·노동·공공) 중 ‘기업부문’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. 다음으로는 ‘금융부문’(38.1%)을 꼽아. 한편 각 부문별 개혁에 대한 세부 평가(5점척도)를 부문별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, 기업(3.66)과 금융(3.70) 부문이 노동(2.92)과 공공(2.90) 부문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

[그림 3] 4대 개혁부문에 대한 평가



2) 4대 개혁부문별 세부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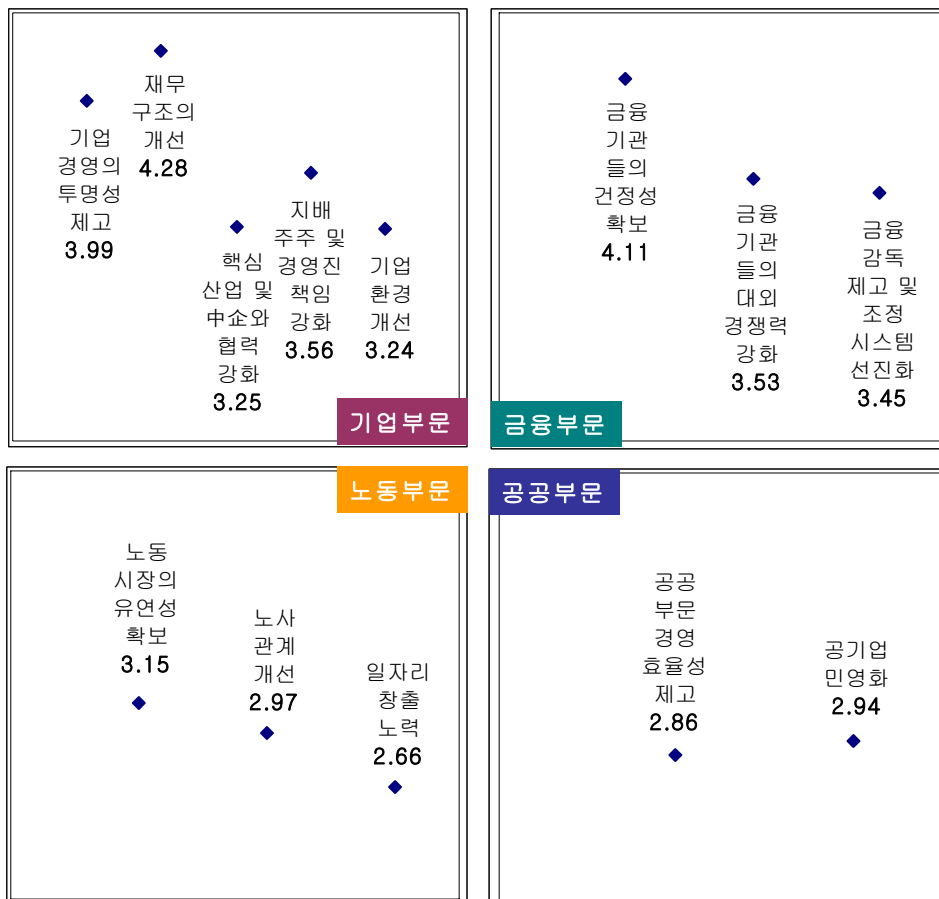
2-1) 기업부문

-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부문의 세부 개혁 내용 중 ‘재무구조개선’(96.6%, 4.28) ‘기업의 투명성 제고’ (88.4%, 3.99)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, ‘핵심 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강화’(32.8%, 3.25), ‘기업환경 개선(34.0%, 3.24)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

2-2) 금융부문

- 경제전문가들은 금융부문의 세부 개혁 내용 중 ‘금융기관의 건정성 확보’(93.7%, 4.11)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, ‘금융감독 제고 및 조정시스템 선진화’(47.4%, 3.45)는 개선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평가

[그림 4] 4대 개혁별 세부 평가



2-3) 노동부문

- 경제전문가들은 노동부문의 세부 개혁 내용은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. 다만 ‘일자리 창출 노력’(11.2%, 2.66)은 이전보다 약화되었다고 인식

2-4) 공공부문

- 경제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‘공공부문 경영 효율성 제고’(20.9%, 2.86)와 ‘공기업 민영화’(24.6%, 2.94) 모두 외환위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

3.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

1)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처 능력

- 경제전문가 대다수(83.2%)는, 현 우리 경제가 고유가, 美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, 가계부채 증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.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14.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

2)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

- 경제전문가 대다수(88.1%)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볼 때, 1997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

4. 향후 과제

1)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

-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‘불필요한 규제완화’ (18.7%), ‘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’(11.9%), ‘고용불안 해소’(11.2%), ‘FTA 확대 등 개방화·국제화’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(1순위 응답 기준)

<표 1> 향후 개선 과제

향후 개선과제	1순위	2순위	3순위
① 물가안정	2.6%	3.7%	4.1%
② 내수진작	5.2%	7.1%	4.1%
③ 부동산시장 안정	9.7%	9.7%	6.0%
④ 재정 건전성 증대	2.6%	4.1%	6.3%
⑤ 고용불안 해소	11.2%	11.2%	5.6%
⑥ FTA 확대 등 개방화·국제화	10.8%	10.4%	11.2%
⑦ 적정 환율 유지	2.2%	3.7%	2.2%
⑧ 불필요한 규제 완화	18.7%	16.4%	8.6%
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	5.2%	3.4%	7.5%
⑩ 노사관계 안정	6.3%	14.6%	10.1%
⑪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	5.6%	2.2%	5.2%
⑫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	11.9%	7.8%	14.2%
⑬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척결	4.9%	3.7%	6.3%
⑭ 기타	3.0%	1.9%	8.6%

2) 기업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(복수응답)

- 경제전문가들은,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‘불필요한 규제완화’(63.3%)와 ‘과감한 투자 유인책’(44.9%)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

3)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(복수응답)

-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‘자본시장 통합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’(49.3%), ‘금융규제 완화’(48.5%), ‘금융 전문인력 양성’(44.0%)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

4)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(복수응답)

-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‘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’(61.7%), ‘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시설 및 고용구조 마련’(45.5%), ‘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’(37.6%)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

5)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역점 과제(복수응답)

-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는 ‘정부조직의 구조조정’(47.4%), ‘정부의 경쟁시스템 구축’(44.4%)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

<별첨 : 조사 결과 요약표>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	
1. 외환위기 이전 상황과 비교해 현 우리 경제의 전반적 변화	① 매우 나빠졌다	-	
	② 나빠진 편이다	7.5%	
	①+② 나빠졌다	7.5%	
	③ 비슷하다	11.6%	
	④ 좋아진 편이다	66.4%	
	⑤ 매우 좋아졌다	14.6%	
	④+⑤ 좋아졌다	81.0%	
1-1.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	① 외환보유액 증대	15.2%	
	② 기업의 경쟁력 향상	65.4%	
	③ 금융 자유화 촉진	8.3%	
	④ 공정경쟁 풍토 조성	2.3%	
	⑤ 법규 및 제도의 선진화	8.3%	
	⑥ 기타	.5%	
1-2.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	① 계층·부문간 양극화 심화	55.0%	
	② 고용불안 심화	25.0%	
	③ 국가 재정 악화	5.0%	
	④ 기타	15.0%	
외환위기의 원인	2-1. 과잉 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.4%
		①+② 악화	.4%
		③ 비슷함	7.1%
		④ 개선된 편	74.3%
		⑤ 매우 개선	18.3%
		④+⑤ 개선	92.5%
	2-2. 기업의 낮은 생산성 및 수익성	① 매우 악화	.4%
		② 악화된 편	2.2%
		①+② 악화	2.6%
		③ 비슷함	20.1%
		④ 개선된 편	68.3%
		⑤ 매우 개선	9.0%
		④+⑤ 개선	77.2%
	2-3. 정경유착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4.1%
		①+② 악화	4.1%
		③ 비슷함	36.9%
		④ 개선된 편	50.4%
		⑤ 매우 개선	8.6%
		④+⑤ 개선	59.0%

설문요지	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외 환 위 기 의 원 인	2-4. 관치금융	① 매우 악화	.7%
		② 악화된 편	6.0%
		①+② 악화	6.7%
		③ 비슷함	39.9%
		④ 개선된 편	43.7%
		⑤ 매우 개선	9.7%
		④+⑤ 개선	53.4%
	2-5. 외채누적과 단기위주의 취약한 외채 구조	① 매우 악화	.4%
		② 악화된 편	4.5%
		①+② 악화	4.9%
		③ 비슷함	15.3%
		④ 개선된 편	60.8%
		⑤ 매우 개선	19.0%
		④+⑤ 개선	79.9%
	2-6.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.7%
		①+② 악화	.7%
		③ 비슷함	4.5%
		④ 개선된 편	55.2%
		⑤ 매우 개선	39.6%
		④+⑤ 개선	94.8%
	2-7. 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	① 매우 악화	1.9%
		② 악화된 편	6.7%
		①+② 악화	8.6%
		③ 비슷함	47.8%
		④ 개선된 편	42.9%
		⑤ 매우 개선	.7%
		④+⑤ 개선	43.7%
3.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부문	① 기업부문	59.3%	
	② 금융부문	38.1%	
	③ 공공부문	1.1%	
	④ 노동부문	1.5%	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	
4. 기업 부문	1)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.4%
		①+② 악화	.4%
		③ 비슷함	11.2%
		④ 개선된 편	77.2%
		⑤ 매우 개선	11.2%
		④+⑤ 개선	88.4%
	2) 재무구조의 개선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.4%
		①+② 악화	.4%
		③ 비슷함	3.0%
		④ 개선된 편	64.9%
		⑤ 매우 개선	31.7%
		④+⑤ 개선	96.6%
	3) 핵심 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 강화	① 매우 악화	.7%
		② 악화된 편	7.1%
		①+② 악화	7.8%
		③ 비슷함	59.3%
		④ 개선된 편	32.5%
		⑤ 매우 개선	.4%
		④+⑤ 개선	32.8%
4)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	① 매우 악화	-	
	② 악화된 편	2.2%	
	①+② 악화	2.2%	
	③ 비슷함	41.8%	
	④ 개선된 편	53.7%	
	⑤ 매우 개선	2.2%	
	④+⑤ 개선	56.0%	
5) 기업환경 개선 (규제해소)	① 매우 악화	.7%	
	② 악화된 편	9.0%	
	①+② 악화	9.7%	
	③ 비슷함	56.3%	
	④ 개선된 편	34.0%	
	⑤ 매우 개선	-	
	④+⑤ 개선	34.0%	

설문요지	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4. 금융 부문	1)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확보 (부실채권 처리 등)	① 매우 악화	.4%
		② 악화된 편	-
		①+② 악화	.4%
		③ 비슷함	6.0%
		④ 개선된 편	75.4%
		⑤ 매우 개선	18.3%
		④+⑤ 개선	93.7%
	2) 금융기관의 대외 경쟁력 강화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3.4%
		①+② 악화	3.4%
		③ 비슷함	40.7%
		④ 개선된 편	55.2%
		⑤ 매우 개선	.7%
		④+⑤ 개선	56.0%
	3) 금융감독 제고 및 조정 시스템 선진화	① 매우 악화	-
		② 악화된 편	3.4%
		①+② 악화	3.4%
		③ 비슷함	49.3%
④ 개선된 편		46.3%	
⑤ 매우 개선		1.1%	
④+⑤ 개선		47.4%	
4. 노동 부문	1)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	① 매우 악화	1.9%
		② 악화된 편	19.8%
		①+② 악화	21.6%
		③ 비슷함	42.5%
		④ 개선된 편	33.6%
		⑤ 매우 개선	2.2%
		④+⑤ 개선	35.8%
	2) 노사관계 개선	① 매우 악화	2.6%
		② 악화된 편	19.0%
		①+② 악화	21.6%
		③ 비슷함	57.8%
		④ 개선된 편	20.1%
		⑤ 매우 개선	.4%
		④+⑤ 개선	20.5%
	3) 일자리 창출 노력	① 매우 악화	5.6%
		② 악화된 편	34.0%
		①+② 악화	39.6%
		③ 비슷함	49.3%
④ 개선된 편		11.2%	
⑤ 매우 개선		-	
④+⑤ 개선		11.2%	

설문요지		조사항목	경제전문가		
4. FDI FDI 관련	1) 공공부문 경영 효율성 제고	① 매우 악화	7.5%		
		② 악화된 편	20.5%		
		①+② 악화	28.0%		
		③ 비슷함	51.1%		
		④ 개선된 편	20.1%		
		⑤ 매우 개선	.7%		
		④+⑤ 개선	20.9%		
	2) 공기업 민영화	① 매우 악화	7.1%		
		② 악화된 편	17.9%		
		①+② 악화	25.0%		
		③ 비슷함	50.4%		
		④ 개선된 편	23.1%		
		⑤ 매우 개선	1.5%		
		④+⑤ 개선	24.6%		
5. 우리 경제가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	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	10.4%			
	②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다	72.8%			
	①+② 감당할 수 있다	83.2%			
	③ 감당하기 어려운 편이다	14.9%			
	③+④ 감당하기 어렵다	14.9%			
	⑤ 예측하기 어렵다	1.9%			
6.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	② 높은 편이다	10.1%			
	①+② 높다	10.1%			
	③ 낮은 편이다	67.5%			
	④ 매우 낮다	20.5%			
	③+④ 낮다	88.1%			
	⑤ 예측하기 어렵다	1.9%			
7.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			1순위	2순위	3순위
	① 물가안정	2.6%	3.7%	4.1%	
	② 내수진작	5.2%	7.1%	4.1%	
	③ 부동산 시장 안정	9.7%	9.7%	6.0%	
	④ 재정 건전성 증대	2.6%	4.1%	6.3%	
	⑤ 고용불안 해소	11.2%	11.2%	5.6%	
	⑥ FTA 확대 등 개방화·국제화	10.8%	10.4%	11.2%	
	⑦ 적정 환율 유지	2.2%	3.7%	2.2%	
	⑧ 불필요한 규제 완화	18.7%	16.4%	8.6%	
	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	5.2%	3.4%	7.5%	
	⑩ 노사관계 안정	6.3%	14.6%	10.1%	
	⑪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	5.6%	2.2%	5.2%	
	⑫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	11.9%	7.8%	14.2%	
	⑬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척결	4.9%	3.7%	6.3%	
⑭ 기타	3.0%	1.9%	8.6%		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8. 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(복수응답)	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	24.3%
	② 불필요한 규제완화	63.3%
	③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	15.0%
	④ 외국기업 유치 등 경제 개방화	14.2%
	⑤ 중소·벤처 기업 육성	13.9%
	⑥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	12.4%
	⑦ 과감한 투자 유인책	44.9%
	⑧ 정경유착 근절	7.5%
	⑨ 기타	2.6%
9.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(복수응답)	① 금융규제 완화(진입·영업 장벽제거)	48.5%
	② 감독행정 쇄신	16.0%
	③ 자본시장 통합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	49.3%
	④ 금융 전문인력 양성	44.0%
	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	7.8%
	⑥ 가계대출 대책(부동산 포함)	4.1%
	⑦ 서민금융지원 확대	3.7%
	⑧ 자산운용산업의 육성	13.4%
	⑨ 관치금융 해소	11.6%
	⑩ 기타	-
10.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(복수응답)	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	61.7%
	② 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시설 및 고용구조 마련	45.5%
	③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	11.7%
	④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	4.5%
	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마련	15.8%
	⑥ 노사분규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	21.1%
	⑦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	37.6%
	⑧ 기타	1.1%
11.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(복수응답)	① 공기업 민영화	31.7%
	② 정부의 경쟁시스템의 구축	44.4%
	③ 정부조직의 구조조정	47.4%
	④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	32.5%
	⑤ 부정부패 근절 등 투명성 제고	34.0%
	⑥ 학연·지연 등의 인사 및 고용관행의 혁신	7.5%
	⑦ 기타	.7%